

京扇子

扇子起源於約 9 世紀時得日本。起初為木製的檜扇、後續發展出紙扇、做為奢華的工藝美術品深深地根植於王公貴族的日常生活中得以發展。種類有舞扇、能樂扇、茶道扇、裝飾用扇子以及消暑散熱用的實用扇等。



製作：京都市

京扇子

扇子是 9 世纪前后在日本发明的。最初是木制桧扇、继而出现纸扇、作为奢侈的工艺美术品、深深植根于王朝社会的日常生活并得到发展。包括舞扇、能乐扇、茶扇、装饰扇以及纳凉用的实用扇等。



制作：京都市

교(京) 접부채

부채는 9세기 경 일본에서 고안되었다. 나무로 만든 노송나무 접부채, 이어서 종이 접부채가 생겨나 사치 공예미술품으로서 왕조사회의 일상생활에 깊이 그 뿌리를 내려 발전했다. 춤출 때 쓰는 접부채, 가면극에 쓰이는 접부채, 차 접부채, 장식용 접부채, 그리고 더울 때 부치는 실용 부채 등이 있다.



교토시 제작

Kyo-sensu (Folding fans)

Folding fans were invented around the 9th century in Japan. Paper fans followed wooden fans, and they took root and developed as a luxurious art item in the everyday lives of dynastic society. There are fans for dancing, for Noh theatre, for tea ceremony, for display and for practical use in cooling oneself.



Produced by City of Kyoto